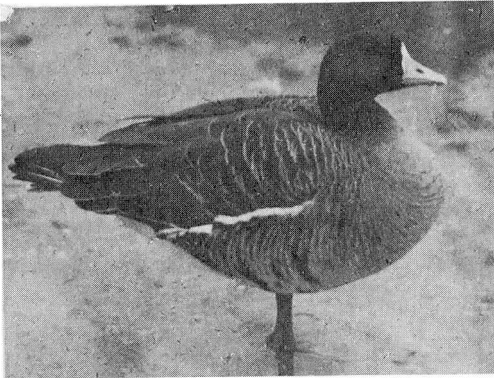


쇠기러기

學名 *Anser albifrons frontalis*
 英名 White-fronted Goose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기러기는 흑기러기, 회색기러기, 흰이마기러기, 흰기러기, 개리, 큰기러기, 쇠기러기가 있고 예전에 기록이 있었던 긴부리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아종(亞種)으로 처리하여 현재는 7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쇠기러기는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우점종이고 전국에 퍼져사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이므로 보통 기러기라 부르기도 한다.

한반도에는 옛부터 많은 숫자의 기러기가 정기적으로 도래하여 줄지어 나는 달밤의 기러기는 무한한 향수와 어릴적 추억같은 기억 속의 새가 되어 화조도나 동화, 노랫말에 즐겨 인용되기도 하였다.

기러기는 결코 단독생활을 하지 않고 떼지어 사는 군서생활을 하는데 채식지에서는 꼭 보초를 세우는 생존의 지혜가 뛰어 난다.

특히 밤 하늘을 날때는 V자나 대열을 짓는 것은 4kg 내외의 큰 체구가 공중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생존의 질서 또한 철저히 지켜 진다.

그래서 옛 중국의 병서(兵書)에도 기러기의 대열이 흐트러지면 지상에 반드시 복병(伏兵)이 있다고 적고있다.

글·사진 李正雨(鳥類研究家)

먼곳에서의 편지와 소식을 일컬어 안서(雁書), 안신(雁信), 안찰(雁札)이라 기러기 안(雁)자를 쓰는 것은 한나라시대 사신갔다 붙잡힌 소무(蘇武)가 북해(현 바이칼호)에 19년간 유배될때 고향으로 가는 기러기 발목에 비단조각에 글을 써 보낸것이 발견되어 다시 구조된다는 중국고사에서 연유하는데 이곳이 기러기 번식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쇠기러기는 부리끝에서 꼬리까지 체장이 70cm 내외의 대형조류로 10월 중순부터 시베리아에서 남하하여 전국의 소택습지나 저수지 강, 해안, 평원의 농경지에서 겨울을 나면서 월동하고 2월부터 번식을 위해 북상을 한다.

번식은 시야가 트인 소택지 풀숲에 마른 풀잎으로 접시모양의 둥지를 틀고 앞가슴과 배의 털을 뽑아 산좌를 만든후 한배에 대개 5개 내외의 크림색 흰 알을 낳아 25일 전후의 포란기간을 거친후 부화를 하고 포란은 암컷이 주로 하며 육추기간은 50여일 쯤 걸린다.

식성은 식물의 풀잎, 줄기, 뿌리가 주식인데 보리밭이나 시금치밭에 앉아 채식을 하면 낮으로 벤 듯이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가장 큰 해조이다.

경남 일대의 최대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의 농경지는 이 기러기떼의 피해가 엄청나 자연보호 측면과 농작물 피해 측면에서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보호지구의 법적 보장이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쇠기러기와 큰기러기는 대개 혼성군을 이루어 한 집단이 많을때는 수천 단위에서 수만 단위로 모이기도 한다.

제주의 성산포, 낙동강하구, 금강하류 한강하류, 서산 간척지 강화등지가 집단도래지이고 특히 금촌, 철원등지의 비무장지대에는 대단위의 기러기가 도래하는 숨은 월동지이다.